

[성서학 연구논문]

산상설교에 나타난 주기도(마 6:9-13)의 신학적 의미

라병원 << 장로회신학대학교 Th. M. / 신약학

성서마당은 성서학 전공자들의 연구 동기를 진작시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매 호마다 구약과 신약 전공자들의 연구 논문을 번갈아 게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성서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산상설교에 나타난 주기도(마 6:9-13)의 신학적 의미¹⁾

라병원 << 장로회신학대학교 Th. M. / 신약학

본고에서 창조적 시대 정신으로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상기하려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응답적인 삶의 표현이요,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과 행함의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의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산상설교의 주기도를 재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I. 주기도 본문의 석의

주기도는 마태복음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끝 날까지 함께 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 말씀의 중심에 위치하여 그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치며 의의 길을 가려는 공동체의 기도이며, 산상설교의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1) 자세한 내용은 라병원, “산상설교에 나타난 주기도(마 6:9-13)의 신학적 의미,” 미간행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참조.

의 실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곧 더 나은 의의 실천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삶을 새로운 토대 위에 세우며, 그들을 은총을 입은 자과 사명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로 결속시킨다. 이제 부름을 받은 예수의 제자는 주기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며 더 나은 의의 실천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A 주기도의 성격(절 상)

οὕτως οὖν προσεύχεσθε ὑμεῖς(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절은 주기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드려야 할 모든 기도에 반영되어야 할 기도의 정신과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의 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들의 기도임을 나타낸다.²⁾ 곧 이 절은 주기도가 외식함으로 기도하는 유대인이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도임을 강조하며, 예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도 가르쳐 주는 기도임을 나타낸다.³⁾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기도는 기도의 한 본보기로 주어진 것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식, 예수의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2) 조경철, 『마태복음』 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성서주석 31-1(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87.

3) 오덕호,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산상설교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188.

B. 기도의 부름말(9절 중)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에는 기도자가 하나님은 누구이며(Who God is), 우리는 누구인가(Who we are)를 인식하게 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자기 정체 의식이 분명하게 들어 있다.⁴⁾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을 가리킨다. 마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그분의 초월성과 절묘하게 결합시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최상의 권위와 그 권위의 완전성을 최대로 가지신 거룩하고 존엄하신 분이심을 나타냈으며, 하나님의 현존을 공간적인 장소로 국한시키려는 온갖 시도를 거절하였다.⁵⁾

주기도의 간구는 모두 ‘우리’의 간구로 나타난다. 곧 우리의 기도 내용은 이웃을 포함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한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자들 사이에 있는 사랑과 평등의 관계를 보여 주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소망이 한데 묶어져 하나의 공동체적 세계를 형성하게 한다.⁶⁾

4) 조경철, 위의 책, 288.

5) 김희성, 『입체적으로 본 산상보훈』(서울: 영성, 2005), 141-142;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ord Biblical Commentary 33A, 채천석 옮김, 『마태복음 1-13』, WBC 성경주석 33상(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9), 272, 289; E. Lohmeyer, *Das Vaterunser*, 39, J. M. Lochman, *Unser Vater: Auslegung des Vaterunsers*, 정권모 옮김, 『주기도문 강해- 기도과 정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46에서 재인용 참조.

6) H. Schümann, *Das Gebet des Herrn als Schlüssel zum Verstehen Jesu*, 조구만, 조구홍 옮김, 『예수 그리스도 이해를 위한 열쇠-주님의 기도』(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2), 34-35.

또한 ‘아바’ (אבא) 부름말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이며, 새 생명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감을 나타내며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⁷⁾ 예수는 ‘아바’ 라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행위를 처음으로 공인하여 그들을 생명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그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친교 안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이 호칭 아바는 제자들에게 의해 불릴 경우 계시의 동참을 의미하며, 또한 실현된 종말론으로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실재하는 그 나라의 현존을 말하며 자녀 됨의 자격과 성령을 소유한 증거가 된다.⁸⁾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바’ 라고 불렀을 때 이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서 십자가 죽음의 필연성을 내포하는 아버지의 사랑, 곧 구원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⁹⁾

C.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첫 번째 간구(9절 하)

ἀγ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 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다. 이 첫 번째 간구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과 계시가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이름의 종말론적인 회복 및 계시와 예수의 인격 및 사역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위해 왔으며, 예수는 이 땅에서 아버지

7) J. Jeremias, *Neutestamentliche Theologie Erster Teil Die Verkündigung Jesu*, 김경희 옮김, 『예수의 선포』(외관: 분도출판사, 1999), 250-251.

8) J. Jeremias, 위의 책, 49-51.

9) J. Jeremias, *The Central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김경신 옮김, 『신약성서의 중심 메시지』(서울: 은성, 1987), 45-47.

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계시함으로써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또한 첫 번째 간구가 의도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자신의 수난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그의 순종,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이 간구는 인간의 죄와 불의와 불순종으로 더럽혀지고 가려진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어 온 만방에 미칠 그 종말론적인 약속이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구이다.¹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구별된 존재로 받들며 살아가게 해 달라는 기원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계속하여 선포되고 확장됨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 누리에 계속 미치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행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촉구하며, 기도자의 삶에서 윤리적 요소가 결코 배제되지 않아야 함을 보여 준다.¹¹⁾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義)가 승리하리라는 기대 가운데 서 있다. 교회는 예수께서 산상설교자의 권위로 선포하는 명령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침으로 거룩성을 실현하여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 선고 앞에 견딜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이 기도를 지키도록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¹²⁾

10) 최갑중, 『예수님이 주신 기도-주기도문 해설』(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95-97., 95-97.

11) 김희성, 위의 책, 143.

12) G. Stercker, *Die Bergpredigt - Ein exegetischer Kommentar*, 전경연, 강한표 옮김, 『산상설교 - 그 신학적 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37-138.

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간구(10절 상)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간구는 첫 번째 간구를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모든 반역적 현실을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행복한 귀결로 이끌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세대를 통하여 길이 빛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기도자는 은총인 동시에 과제요, 희망이며 목표인 이 간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신뢰하는 동시에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하는 것이다.¹³⁾

하나님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는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며, 다가온 종말론적인 구원의 선물을 받고 회개의 요청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건이며, 사랑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자에게 지금 여기서 사랑으로 사는 삶을 요구한다. 곧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된 자는 그에 부합된 삶을 살 것인지 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¹⁴⁾ 곧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 거룩성과 윤리적인 책임,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이며 책임적인 응답,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 부름 받은 제자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의의 실천이 요청되는 것이다.¹⁵⁾

아울러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도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돕

13) L. Boff, *The Lord's Prayer-The Prayer of Integral Liberation*, 이정희 옮김, 『주의 기도-총체적 해방의 기도』(서울: 다산글방, 2000), 126-131.

14) 장홍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와 선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54-62.

15) 최갑중, 위의 책, 163-167.

는 것이다.¹⁶⁾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의 관철을 위한 표상을 갖는다. 그리하여 이 간구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랑의 실현에 대한 청원이며, 동시에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한 기도자의 행동 지침의 표명이 된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즉 사랑의 정신을 통하여 실현된다.¹⁷⁾

E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번째 간구(10절 하)

γει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γῆς.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마태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마태의 신학적인 무게가 담겨 있다. 이 간구에는 현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인간의 악한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악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함을 의미하며,¹⁸⁾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시라고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펼치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인 의무, 곧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온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함을 강조한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은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마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큰 관심을 두었고 사랑의 계명 실천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곧 사랑의 이중 계명에서 나타난다. 마태는 이웃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동등한 것임을 보여 주면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산상설교, 그 중

16) 오덕호, 위의 책, 200.

17) 김희성, 위의 책, 145.

18) L. Boff, 위의 책, 136-137.

에서도 특히 황금률과 관계를 맺게 하고, 동시에 모든 율법 조항과 선지자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 주려 하였다.¹⁹⁾ ‘구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갖는 율법과 선지자 어구는 ‘하나님의 뜻’이란 어구를 통해서 이 간구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또한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인 예수의 최후의 지상 명령(마 28:16-20)과도 관련을 맺게 된다.²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참여하게 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미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계속적인 성장과 종국적인 완성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 계속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²¹⁾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 곧 황금률을 행하여 열매 맺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마 7:21 참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율타리 안에 있는 모든 계명, 곧 사랑을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의 형제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²²⁾

하늘과 땅은 동등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점이 존재하고, 완전한 하늘에 비해 땅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6:19), 유희와 시련의 장소이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름말’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19) 김희성, “통전적으로 본 마태복음의 이중 사랑 계명(마 22:34-40),” 『말씀과 현존』(서울: 한들출판사, 2000), 16-17.

20) 김희성, 위의 책, 20.

21) 최갑중, 위의 책, 196.

22) 김희성, 위의 책, 146.

서처럼 땅에서도’는 구원사를 근거하여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역동적인 출발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²³⁾ 그러므로 이 간구에는 “죄악 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라는 헌신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다.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끝 날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 권세 있는 임마누엘 주님의 동행이 전제되어 있다.²⁴⁾

F. 필요한 양식에 대한 네 번째 간구(11절)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그리고’ (*καί*)라는 접속사를 통해 서로를 엮어 놓은 세 가지 간구, 곧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긴박한 요청이 따른다. 주기도의 후반부의 간구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간구로, 자신의 삶을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히 내맡기며, 그 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우리’ 간구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간구의 해석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양식’ (*ἄρτος*)을 꾸미는 ‘일용할’로 번역된 *ἐπιούσιος*이다. 여기서는 이를 ‘존재를 위하여 필수적인’으로 보아 이 간구를 “오늘 우리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양식을 주소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일용

23) 김희성, “산상보훈에 나타난 imitatio Dei(하나님 닮음), 『말씀과 현존』 성서연구논문집 I(서울: 한들, 2000), 214-215.

24) D. A. Hagner, 위의 책, 291.

할 양식'을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는 일용할 양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 양식을 구하는 것이며, 그것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삶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은 전 삶을 바쳐 보다 나은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마 6:33)를 추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만족하게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⁵⁾

또 하나 '우리'라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놓을 결단을 하는 사람이다. 기도는 최대의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간구야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가장 간절할 마음으로 구해야 할 내용이며, 동시에 내 것을 가지지 못한 이웃과 나누는 삶에 힘써서 이웃 모두가 일용할 식량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하다.²⁶⁾

아울러 이 간구가 종말론적인 축복이 현재 이 순간에 구현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이 간구는 분명 현실적인 '양식'을 구하지만 그럼에도 이 간구에는 종말론적인 잔치에 대한 기대가 아울러 담겨 있다. 그것은 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 교회 전체는 인간의 생각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창조 권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상세한 생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더 깊은 신뢰를 드러야 한다. 교회는 매일의 생활과 세속적 문제들을 이 기도에 포함시키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실재를 자기 생활의 결정적 전망이 되도록 하며,²⁷⁾ 하늘과

25) W. Foerster, "ἐπιούσιος," TDNT II, 598-599; 최갑중, 위의 책, 218-221; 조경철, 위의 책, 298.

26) D. A. Hagner, 위의 책, 293; 조경철, 위의 책, 300-301.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명하신 모든 가르침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동터오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을 보여 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G 지은 죄에 대한 다섯 번째 간구(12절)

καὶ ἄφεσις ἡμῖν 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ήκαμεν 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ἡμῶν·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에 대한 간구의 전제는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이미 용서했다는 것이다. 예수는 ‘용서하지 않은 용서 받은 종의 비유’를 통하여 청중들의 심장을 꿰뚫어 인격적으로 체험된, 이로써 타자 속으로 공황과 용서의 정신이 확산되도록 그 정신을 심기를 원한다. 이 비유는 왕이 헤어나올 수 없도록 엄청난 빛을 진 채무자에게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예수의 선포이다.²⁸⁾ 곧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므로써 값없이 화해를 제공하시며, 성령께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새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²⁹⁾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항상’ 서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의 가장 깊은 본질, 그의 무한한 사랑에 속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믿는다는 것은 용서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용서를 간구

27) G. Strecker, 위의 책, 145-146.

28) 성종현, 위의 책, 307-309.

29) Calvin's Commentaries, 211.

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 준 자들을 우리 자신이 ‘그의 용서의 관점으로 부터’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한 이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로부터 이 용서의 열매가 그의 형제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죄 용서’는 예수에게 있어서 수동적인 참음이나 견뎌 냄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화해와 사랑의 자세를 의미한다. 여기서 모든 장벽과 담이 허물어진다.³⁰⁾

예수는 그를 메시아로 따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다시 종말적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이 간구도 종말론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향의 끝은 종말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용서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 심판에서 생명에로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앞서서 화해해야 하고(마 5:24 이하 참조), 형제를 용서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마 18:35 참조).³¹⁾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다가왔다는 것, 또한 성례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용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26:28). 더욱이 마태 교회에게 주어진 죄를 범한 형제를 징계하는 권한은 죄를 용서하는 전권이 교회에 맡겨져서 교회 집회에서 인식된다는 것을 전제한다(18:18-19).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역사와 현재 교회의 체험과 관련됨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³²⁾

30) 성종현, 위의 논문, 310-311.

31) 김희성, 위의 책, 151.

32) G. Strecker, 위의 책, 147.

H. 빠지기 쉬운 시험과 악에 대한 여섯 번째 간구(13절)

καὶ μὴ εἰσενέγκῃ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 ἀλλὰ ῥύσαι ἡμᾶς ἀπὸ τοῦ πονηροῦ.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간구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라는 뼈아픈 인식과 모든 시험을 극복한 예수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간의 삶을 타락시키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추방시키겠다는 결단이 전제되어 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끝 날까지 함께 하시며 그 통치를 펼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이 간구는 우리의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정신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세계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³³⁾

‘시험’(πειρασμός)은 일상생활에서 체험되는 다양한 유혹, 곧 악한 세력의 시험, 유혹, 강요를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악마는 종말의 때에 더욱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는 신앙을 위협하고 의심하게 하여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현재적·종말론적 상황과 때가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³⁴⁾

유혹이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곧 그리스도인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된다면, 이 간구는 악의 유혹에 빠져 허덕이지 말게 해 달라는 실존적/종말론적인 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간구는 지금 여기서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악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게 해 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곧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이제 주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과

33) L. Boff, 위의 책, 201-245 참조.

34) 조경철, 위의 책, 304-305.

종말적인 사탄의 사망적인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악을 분별하고 악의 권세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³⁵⁾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현재화하고 있음을 체험하도록 가르치고, 그것이 그 종말론적인 또는 역사의 종점에서 맞게 될 위기에 대하여 전망할 때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이미 현재 이 자리에 열린 구원의 시기에 기도자는 오직 아버지만을 주시하면서 아버지의 보호에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³⁶⁾

! 결어(종결 송영)

ὅτι σου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καὶ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초기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주기도를 외우면서 슬한 사탄의 유혹에 정면으로 대결하여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내림의 대망이 있을 주기도의 종결 송영은³⁷⁾ ‘신학적으로’ 주기도의 ‘전체’의 틀 안에서 깊은 의미를 갖는다. 곧 영광송은 처음 세 간구에 대한 예식상의 답변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주기도는 앞과 뒤가 조화를 이루며 원처럼 연결된다.³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아버지께 돌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자세이다. 이 송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진정한 완성자임을 고백하며,³⁹⁾ 하나님께 찬양 드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35) 김희성, 위의 책, 156.

36) H. Schümann, 위의 책, 175.

37) 최갑중, 위의 책, 264.

38) O. Cullmann, 위의 책, 145.

변호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⁴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교회의 기도의 토태가 됨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위해서도 구속력 있는 유일한 척도들을 설정해 주는, 철저하면서도 동시에 실천 가능한 율법⁴¹⁾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II. 주기도의 신학적 의미

A 마태복음에서 주기도의 신학적 의미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생명적인 관계로 부르심을 강조하는 기도이다. 곧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며,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다. 이제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의 자녀된 자는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동시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며, 예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결정 기준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의의 길' 이어야 한다. 그 의의 길이란 이 땅에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하는 것이다.⁴²⁾

39) Hamer, *Understanding the Lord's Prayer*, 118; Boers, *Lord, Teach Us to Pray*, 147, 최갑중, 위의 책, 274-275에서 재인용.

40) J. M. Lochman, 위의 책, 250-254.

41) G. Strecker, 위의 책, 156.

42) 김희성, "통전적으로 본 마태복음의 이중 사랑 계명(마 22:34-40)," 『말씀과 현존』 (서울: 한들출판사, 2000), 13-34 참조.

또한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새로운 차원의 응답이 됨을 알려 주는 기도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의 위임과 권세를 받아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고난 받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능력 행함으로 걸어가신 예수께서 가신 길을 좇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며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한다.

현존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⁴³⁾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가 승리하리라는 기대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선포하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거룩성을 실현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힘써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합당한 삶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준비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행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침으로 삼아 오늘 교회의 모든 예배에서, 선포에서, 생명 양식을 베풀음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B. 산상설교에서 주기도의 신학적 의미

산상설교의 주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와 이해를 초월하여 자기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함을 가르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땅에 있는 자녀들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의 완전함을 닮고

43) 장홍길, 『신약성경윤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367-368.

태도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가르친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제한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행해야 하고, 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산상설교의 주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을 행하려는 자의 기도가 된다. 곧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 ‘하나님 사랑’과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이중적인 사랑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 응답적인 ‘책임’ 또는 ‘과제’이며, ‘추종’과 ‘섬김’의 내용이며, 맺혀야 할 ‘열매’이다.⁴⁴⁾

또한 산상설교의 주기도는 인간과 함께 길을 가시려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요구 앞에 세우려는 역동적인 관계를 서술하고 동시에 바로 이 요구에서 그 요구를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대면하게 한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주기도는 예수의 선포 속에 다가온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행동하는 자의 기도이며, 오직 자기의 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자들을 위해 은총으로 오는 의를 말하는 기도이다.⁴⁵⁾

우리는 ‘이미’(schon)와 ‘아직 아니’(noch nicht)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선취적으로 옛 시대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가르치며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제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

44) 장홍길,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 『바른 신학 균형 목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03.

45) 장홍길, 『신약성경윤리』, 81-82 참조.

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받고 찾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받은 자라면 마땅히 주기도를 기도하는 자의 책임 안에서 살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유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증거자로 사는 것이다.⁴⁶⁾

III. 결론과 제언

주기도로 기도하는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행동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보여 주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당당하게 걸 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용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삶과 열망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며,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사명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제자도를 실천 함을 통해 이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이끄는 교회되기를 바란다.

∴ **리병원** 영남신학대학교(Th.B.)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도계교회 부목사로 있다.

46) 장홍길, 『신약성경윤리』, 56-62 참조.